

불사통해 내적 기반 다진다

천태종, 새해는...



천태종 올해 사업 키워드는 불사를 통한 내적 기반 조성, 복지활동 및 대외홍보 강화다. 천태종은 1월 25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무시표와 중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사진)은 △중단 발전의 내적기반 조성 △대사회 참여 및 복지활동 강화 △중단 정보화 실현 및 대외홍보 강화 등 3대 중무시표와 18개 중무계획을 제시했다.

천태종이 내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불사'다. 우선 현재

30% 정도 시공된 천태유물전시관 건립에 올초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구인사 광명당 불사(연건평 3600평)와 천태조사전의 연내 준공을 목표로 본산 성역화사업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3600평에 최첨단 도서관을 건립하는 금강대 불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6월에는 국내 학술대회를, 11월에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천태문화 학술 진흥사업에 내실을 기할

비해 현재 사찰내에 65명의 관리요원과 조선불교도연맹측 스님 9명을 배치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천태종이 올해 6월 안으로 의료봉사 등 기능별 직능별로 전국 사찰에서 5백여명을 선발해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구성된 간다라문화예술협회를 통해 파키스탄 지역의 고대사원 발굴 복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덴마크

유물전시관·구인사 광명당 건립 가속 북한과 교류 박차...자원봉사단 조직

예정이다.

대사회 참여 및 복지활동 강화를 위해서 천태종은 남북불교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원된 개성 영통사의 성지순례를 위해 올 초부터 북측과 협상중이며, 개성 국경사 발굴복원도 함께 서두를 생각이다.

운덕 스님은 "천태종이 북한과 교류를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후원이 아니라 불교문화의 교류에 원칙을 두고 있다"며 "경제지원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남북교류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 운덕 스님은 "영통사 성지순례를 대

고공사와 연계해 입양아들의 부모찾기 운동지원과 신도 3명이 한 불우 가정을 책임지는 3:1 결연사업도 확대한다.

중단 정보화 실현과 대외 홍보강화를 위해 천태종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강불교신문의 주간 발행이다. 7월부터 명실공히 범불교적인 주간신문으로 재창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사내 금강미디어 센터를 설치해 인터넷불교뉴스를 동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군순파승문제도 올 3월말 국방부의 회신을 받고난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창종 60주년 준비의 해' 선포

진각종, 새해는...



진각종이 올해를 '창종 60주년 준비의 해'로 선포하고 한국불교문화센터건립 추진 등 종단의 종책 불사 심화를 통해 대사회적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 정사(사진)는 1월 23일 총무원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창종 60주년을 기념해 4월 안으로 기념사업회를 구성, 교육과 포교 및 복지분야 등 종단의 전방위 분야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 우선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각종은 한국불교 전통의례 복원 사업과 한국불교문화센터 건립 및 총무원 환경정비 사업, 민족 복지를 통한 남북한 교류 사업 등 3대 종책 불사의 지표를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정 정사는 "가족 포교의 해'로 정한 포교사업 부문에서는 '건강한 가정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주에 있는 산내 연수원을 재정비해

또 사회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구호제도인 '진각복지 119'와 '진각복지 24시'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실행단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심으로 한 '진각 리더스클럽'과 불자 기업인들의 모임인 '진각실업인회'를 창립시킬 예정이다.

복지사업부문에서는 진각복지재단을 통해 국내 탈북자들의 취업알선 사업을 펼치며,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만경

기념사업회 구성, 교육·포교 비전 수립 밀교 전통의례 복원·탈북자 취업 지원

주말수행센터로 탈바꿈시켜 불자들이 주말에 수행도 하고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법과 의례의식 재정비와 교육을 통한 스승 및 신교도 위계체제 정립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불사 및 법회 의식은 물론 조직과 교법 등을 현대 감각에 맞게 과감하게 개혁한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진언, 천불가 등 진각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리의 통일화 작업을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친다.

대 건너편 두루섬에 조성되는 비닐하우스 농장 사업도 북한측과 협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과 대구 포항에 노인시설과 미혼모 시설을 4곳 정도 올해안에 개원시킬 예정이다. 해외 복지사업으로는 현재 유아교육과 정보화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 JGO 센터에 불당을 개설한다.

이외에도 영상, 출판, 신문사업을 총괄하는 '밀교미디어센터'를 개소해 사이버 홍보사업을 강화한다. 또 천태종과 합심해 군순파승도 올해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김주일 기자

정억순 보살 좌복 2500채 기증

2월7일 강원도 일대 군법당에 전달 예정



정억순 보살이 군종특별교구에 좌복 2500채를 기증했다. 사진 왼쪽부터 순양호 군종특별교구 상임자문위원, 이상무 50사단 군법사, 정억순 보살, 김기원 (사)세생명령회봉사단 대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의 첫 번째 성과가 결실을 맺었다.

군법당에 좌복 5000채를 기증하기로 약정한 정억순 보살이 지난 1월 24일 경북 칠곡 화랑선원에서 군종특별교구 상임자문위원 순양호 예비역 군법사와 50사단 이상무 군법사가 참석한 가운데 1차분 2500채의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 보살이 기증한 좌복은 10톤 트럭 한 대분으로 2월 7일 강원도 원주, 홍천, 인제 등으로 배송되어 각 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 보살이 군장병을 위한 좌복을 보시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것은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평소 소신과 열악한 군포교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솜·양단지 등 재료를 모으았다.

정 보살이 제작한 좌복은 군법사용, 장교용, 사병용 등 3종류. 각각의 좌복은 1kg 내외의 솜을 잘라 속지를 입히고 그 위에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자기를 입혀져 있다. 마지 위에는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양장재로 싸여 있어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작 공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 솜을 속지에 삽입할 크기로 잘라 하루를 재운 다음 속지 재봉을 한 이후 마지와 겨울용 양장재 재봉을 해 속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거쳐 좌복이 완성된다.

장교용 좌복에는 화랑이 달리는 모습과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 두려울까 그레도 모자라면 이 몸도 던지리라'라는 문구가, 사병용에는 '조국을 위한다면 무엇이 아까우리오'라는 문구가 각각 수놓아져 있다.

1주일에 2-3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세생

명광명회봉사단 대표 김기원 전주산업대 명예교수는 "좌복 한 개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며 "수천만원의 빚을 얻어 군법당에 좌복을 보내기 위해 헌신하는 정 보살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말했다.

정 보살은 그동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무료로 이불을 보시해 왔으며 화랑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때 3천만원어치의 초코파이를 구매해 군법당에 보시하는 것으로 49채를 대신하는 등 군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글/사진=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어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이제 스님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용
참선방식

참선
방식

결방식

건강
좌복방식

지정차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정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경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하여 깨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몸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삼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최고급 내차 및 원단사용
- 쿠션: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온도조절 가능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www.heatway.co.kr
- 불자기업 (주)에간하이텍
- 계좌번호: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에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간경부

사교방자

연꽃 지걸이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구입문의: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농협 949-02-315451 (정정애)